인천항 야적 전면금지 조치 완화될 듯

인천항내 사료부원료 날림먼지 농도측정 시연회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사료용부원료 가운데 일부 품목은 야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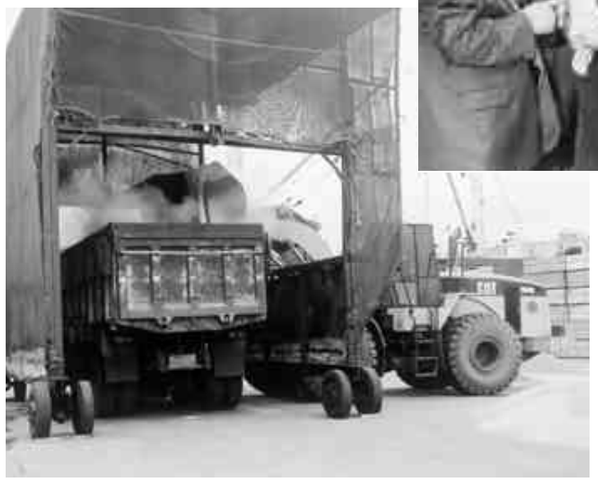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한국사료협회(회장 정일영)와 인천항만물류협회, 경인지역 회원사, 생산자단체, 하역회사, 인천항운노조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 인천항 8부두 82번 야적장에서 사료부원료의 비산먼지 발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하역작업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7월1일부터 사료용부원료 전 품목에 대해 야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천항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 시행하기에 앞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자는 한국사료협회와 인천항만물류협회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하역사들은 10여대의 하역장비를 동원해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으로 채종박, 알팔파, 야자박, 대두박 등 9개 품목에 대해 상·하차 작업을 재현했다.

사료협회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비산먼지발생 농도측정 결과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먼지가 인천항 바깥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도 있어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야적을 허용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이에 인천청에서는 비산먼지의 발생정도가 비교적 덜하다고 판단되는 1~2개 품목의 야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료협회 정일영회장은 당일 시연회에 앞서 협회 경인지역 회원사 대표 및 생산자단체장들과 함께 한준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방문하여 "당초의 방침대로 인천항내 사료부원료에 대한 야적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사료원료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져 사료산업은 물론 축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되며 나아가 육류값 파동으로 서민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우게 될 것"이라며 "모든 부원료에 대한 전면적인 야적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비산먼지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지원하의 사료부원료 전용사일로 건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날 시연회에서는 상당히 강한 바람속에서 10여대의하역장비를동원해실제상황과같은 조건으로 대두박등 9개 품목에 대해 상·하차작업을재연했다.



▲ 한국사료협회 정일영회장은 이날 시연회에 앞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항야적 전면금지 조치는 사료산업은 물론 축산업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강조하고 전면금지 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사진은 시연회에서 생산자 단체장들과 대책을논의하고있는 모습. 오른쪽부터본회 정일영회장, 전국한우협회 남호경회장, 한국오리협회 김규중회장, 대한양돈협회 최영열회장, 본회박래경이사)